

# 가정폭력 피해자 10명중 8명은 여성

### 79%가 부부·연인 관계에서 발생 상해사건 피해자 처벌 원치 않으면 62% 불기소...폭력 부추기는 요인

상해를 입은 가정 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이었으며, 부부나 연인 등 파트너 관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친족간 폭력 사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절반이 넘는 폭력 가해자가 재판조차 받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 강도 높은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5일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 처분실태를 가해자·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 기관은 대검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

폭력 사범 자료 중 2017년 9-11월(1682건)과 2018년 9-11월(1472건) 등 전체 3154건에 대한 상해 관련 범죄를 추려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성별은 남성 83.8%, 여성 16.2%였다.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79.1%를 차지했고, 기타 친족 간 사건이 20.9%였다. 이번 연구에선 파트너 관계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여기는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를 비롯한 동거인, 연인 관계까지 포함했다.

가정 내 상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일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전체 사건의 77.1%였다. 피의자가 남성일 때 83.6%가 일방 폭력, 14.6%가 쌍방 폭력이었다. 피의자가 여성일 때는 43.6%가 일방 폭력, 51.0%가 쌍방 폭력이었다.

폭력이 발생한 동기를 보면 생활양식·가치관(52.2%) 문제가 가장 많았고, 동거 의무(17.8%), 경제·부양 문제(10.6%), 가사협조

(7.9%), 기타(6.8%), 이혼 관련(3.5%) 등의 순이었다. 검찰 처분은 가정보호사건 송치(42.4%)가 가장 많았으며 기소(30.1%), 불기소(22.4%), 기타(5.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2.6%가 재판을 받지 않는 불기소 처분됐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안 밝혔을 경우엔 25.7%가 불기소 처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인 파트너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합의 등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기소' 남발은 가정폭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관련 기준을 새롭게 점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범행정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림막 건어낸 전일빌딩...곳곳에 5·18 탄원 25일 외벽 곳곳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탄 이 새겨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의 외벽 공사 가림막이 모두 걷혀 있다. 5·18 기념공간 조성 등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전일빌딩은 내년 3월 재개관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코레일 노사 교섭 타결...철도파업 5일 만에 철회 열차운행 단계적 정상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5일만에 극적으로 철회됐다.

이에 따라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위해 철도를 이용하던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코레일)는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국

철도 서울사옥에서 본 교섭을 재개해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25일 오전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회되고, 25일부터 KTX 등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와 열차 운행 완전 정상화까지는 1~2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철도 노사는 ▲임금 1.8% 인상 ▲인력 충원은 노

사정 협의체 구성해 지속 협의 ▲KTX-SRT 통합은 노사가 정부에 공동 건의 등에 합의했다.

이날 타결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예정돼 철도노조 지도부가 부담을 가진 데다 노조 요구 중 하나인 한국철도·SR 통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역 재개를 위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실마리가 풀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

## 학생 보다 심한 실업팀 폭력...11% "성폭력 피해"

"어떤 지도자는 술을 마시면서 고등학생 여자선수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30대 후반 선수)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속 성인 실업팀 선수 10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25일 발표한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1251명 중 143명(11.4%)이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22일-8월5일 17개 지자체와 40여 개 공공기관 소속 56개 종목 실업선수 40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1251명이 조사에 응했다.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 운동부 소속 실업팀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는 학생 선수들보다 심각했다.

인권위가 지난 7일 발표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5만7557명) 결과 성폭력은 3.8%인데 비해 이번 실업팀 성인선수들은 실태조사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선수는 11.4%로 나타났다.

성인 선수의 33.9%는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15.3%는 신체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장석웅 전남교육감 "인사 청탁하면 오히려 불이익"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일반직 인사를 앞두고 공식석상에서 "인사청탁을 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인사에서 역량 있는 젊은 과장들을 전진 배치해 우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이번 인사에서도 역량 있는 분들을 많

이 발탁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규모의 승진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직 인사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설왕설래가 많고 외부인들이 직접 나에게 청탁하기도 한다"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고 인사청탁을 사전에 차단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제284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1.(금) ~ 12. 13.(금)

실시간 중계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  
www.webtv.council.gwangju.kr

광주광역시의회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7	달뜨기 06:28			
		해지기 17:22	달지기 17:16			
차가운 바람 대체로 맑다 점차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5/15	보성	구름많음	2/13	
목포	구름많음	5/12	순천	구름많음	7/15	
여수	구름많음	8/14	영광	구름많음	2/14	
나주	구름많음	3/15	진도	구름많음	5/13	
완도	구름많음	7/14	전주	구름많음	4/15	
구례	구름많음	3/16	군산	구름많음	5/14	
강진	구름많음	4/14	남원	구름많음	3/15	
해남	구름많음	3/14	흑산도	구름많음	8/12	
장성	구름많음	3/1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0.5~1.0	
	면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0.5~1.5	
	면바다(동)	북~북동	1.5~3.0	북~북동	1.0~2.0	
남해서부	안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0.5~1.5	
	면바다(서)	북~북동	2.0~4.0	북~북동	1.5~2.5	
	면바다(동)	북~북동	2.0~4.0	북~북동	1.5~3.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44		01:22		
		19:17		14:01		
여수		02:13		08:51		
		14:50		20:54		
◇ 주간 날씨						
27(수)	28(목)	29(금)	30(토)	12/1(일)	2(월)	3(화)
☀	☀	☀	☀	☁	☀	☀
6/12	3/13	2/13	2/14	5/12	4/9	0/8